

무관 정서의 점화가 체제 정당화 정도에 미치는 영향

김 현 정

박 상 회[†]

충북대학교

사람들은 자신이 사는 세상과 체제가 정당하다고 합리화하고 싶은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Jost & Banaji, 1994), 이 체제 정당화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사회 변화를 지지하지 않는다. 한편 대상과 전혀 관련이 없는 정서가 그 대상에 대한 지각과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Lerner & Keltner, 2000). 그러므로 체제와 관련 없이 점화된 정서가 체제 정당화 정도에 영향을 주고, 그에 따라 체제에 대한 저항 의지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검증하기 위해 동영상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기쁨, 슬픔, 분노, 공포의 네 가지 기본 정서 중 하나를 점화한 후 체제 정당화 정도와 현 사회 체제에 저항하고자 하는 의지를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예측한 대로 분노 정서가 유발된 참가자들은 공포와 기쁨 정서가 유발된 참가자들에 비해 체제를 덜 정당화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또한 각 정서 조건 별 저항 의지의 차이는 없었으나 정서에서 체제 정당화를 통해 저항 의지로 이어지는 매개 효과는 유의미하였다. 이 결과는 특정한 정서가 구체적인 현실에 대한 평가와 현실을 변화시키려는 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주요어 : 체제 정당화, 무관 정서, 저항 의지, 정서 점화

[†] 교신저자: 박상회, 충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28644) 충북 청주시 흥덕구 충대로 1
Tel: 043-261-2192, E-mail: sangheepark@chungbuk.ac.kr

왜 많은 수의 저소득층 사람들은 친기업적 공약을 펼치는 정당을 지지할까? 왜 다른 연령층의 사람들보다 복지 정책이 비교적 더 필요한 노인층에서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가 높을까? 선거와 같이 우리가 사는 사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에서 왜 사람들은 자신의 이득과 오히려 반대되는 선택을 할까? 사회 체제의 불평등함이 존재함에도 그 불평등함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왜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는가? Jost와 Banaji(1994)는 이 의문과 관련하여 사람들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을 정당하다고 믿고 사회 체제를 합리화시키고 싶어 하는 동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에 체제 정당화(System Justification Theory)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후 체제 정당화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성격 특질과 정치적 성향 등과 같은 개인차 요인들과 체제에 대한 위협이나 죽음에 대한 생각 등 상황 요인들이 체제 정당화 정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혀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체제에 대한 판단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상황 요인이 체제 정당화 정도를 변화시킨다는 최근 연구(Kay et al., 2007)에 주목하여, 체제와 관련 없이 유발된 특정 정서가 체제를 정당화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체제 정당화의 결과

체제 정당화 이론이 발표된 이후로 연구자들은 체제에 대한 정당화가 가져오는 심리적, 사회적 결과들에 관심을 가져 왔다(Jost, Pelham, Sheldon, & Ni Sullivan, 2003; Jost & Thompson, 2000; Sidanius & Pratto, 1999; Jost, Chaikalis-Petritsis, Abrams, Sidanius, Toorn, & Bratt, 2012). 모든 사회에는 체제로 인해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기득권층; 예를 들어 자본주의 체제 내의 부자)과 불리한 위치의 사람들(비기득권층; 예를 들어 자본주의 체제 내의 가난한 사람들)이 있

게 마련이다. 체제에 대한 정당화 동기는 기득권층에게는 자신과 자신의 집단에게 이미 유리한 체제를 유지하게끔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겠지만 비기득권층에게는 체제를 개혁하거나 변화시키고자 하는 동기를 방해함으로써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Jost와 Hunyady(2003)에 따르면 이 체제 정당화 동기는 자신이 사는 세계를 정당하게 보고 싶어 하는 욕구이므로, 역설적이게도 이 동기는 기득권층 뿐 아니라 비기득권층에게서도 발견된다.

기득권층과 비기득권층의 집단을 구분하여 수행한 체제 정당화의 결과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Jost et al., 2003; Jost et al., 2012), 체제 정당화는 기득권층과 비기득권층 모두에게서 부정 정서를 낮추고 긍정 정서를 증가시키는 순기능적 측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집단의 사람들에게서 모두 체제 합법성에 대한 높은 평가가 나타났으며 그에 대한 귀결로 사회 변화에 대한 낮은 지지가 관찰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체제 정당화의 효과들은 장기적 관점에서는 기득권층과 비기득권층에게 서로 다른 방향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즉 사회 변혁에 대한 거부감 또는 낮은 지지는 결국 불평등한 체제가 지속되게 한다는 점에서 비기득권층 집단에게 있어서 체제 정당화의 가장 역기능적 측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Jost 등(2012)은 사회 변혁에 대한 낮은 지지에 주목하여 체제 정당화와 집단적 저항 의지, 그리고 집단적 저항 의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집단 정체성과 집단 기반의 분노 정서와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체제 정당화의 정도는 사회에서 일어난 부정적인 사건에 저항하고자 하는 의지와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집단 수준의 분노와 집단 정체성과도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Owuamalam, Issmer, Zagefka, Klafßen, & Wagner(2014)는 내집단이 차별을 받는 상황에서도 비기득권층의 사람들이 사회가 공정하다고 믿을수록 집단적 저항 행동에 나서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을 보였다. Jost 등(2012)과 Owuamalam 등(2014)의 연구는 높

은 체제 정당화 수준이 현실의 사회 문제에서의 집단 수준의 분노와 집단적 저항 의지 등과 영향이 높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함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체제 정당화 동기에 관련된 개인/상황 차원의 요인들

그렇다면 체제 정당화 동기는 어떤 요인들에 의해 활성화되는가? 체제 정당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심리적 경향들을 알아봄으로써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것이다. Jost와 Hunyady(2005)는 체제 정당화 연구들을 종합하면서, 체제 정당화가 연합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개인적, 상황적 요인들을 정리하였다. 우선 체제 정당화 동기와 관련이 있는 개인차 요인으로는 경험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이 있다. 다양한 일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의미하는 성격 특질인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체제 정당화 동기와 부적 상관을 보임이 밝혀졌다. 또한 질서 욕구(Needs for Order; Lerner, 1965), 구조 욕구(Personal Need for Structure; Neuberg & Newsom, 1993), 인지적 종결 욕구(Need for Cognitive Closure; Kruglanski, Webster, & Klem, 1993) 등도 체제 정당화와 연관이 있다. 질서 욕구와 구조 욕구, 인지적 종결 욕구는 모두 정치적 보수주의와도 정적인 관계가 있음이 밝혀진 욕구들로서, 질서정연하고 구조화되어 있으며 애매모호하지 않은 환경을 선호하는 욕구이다. 이 세 가지 심리적 경향성과 체제 정당화는 정적인 상관을 보인다.

한편 체제 정당화와 연관이 있는 상황적 차원의 요인들로는 내집단 고정관념에의 노출, 위협한 세상에 대한 지각, 죽음에 대한 불안, 체제 불안정과 체제 위협, 테러리즘 등이 있는데 모두 체제 정당화 동기와 정적인 상관을 보인다(Jost & Hunyady, 2005). 이 상황 변인들은 모두 사회의 안전함이나 안정, 확실성과 관계가 있는

변인들이다. Kay와 Friesen(2011)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 또는 내집단에 대해 위협을 느낄 때, 체제가 불안정하다거나 세상이 위험하다고 지각할 때,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통제감을 낮게 지각할 때 세상을 안전한 곳으로 지각하고 싶어하고, 이러한 방어적 반응의 결과 체제를 정당화하는 경향이 강해지게 된다. 마찬가지로 사회의 불확실성이 부각되는 것은 체제 정당화와 부적인 연관성을 가진다(Jost et al, 2012). 반면, Kay, Gaucher, Napier, Callan, & Laurin(2008)는 통제감 조작을 통한 경험적 연구에서 개인적인 통제감을 높게 지각하는 것이 외부의 세계를 덜 합리화하거나 지지하지 않는 경향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또한 Kay, Jost, & Young(2005)은 특정 사건에 대한 귀인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체제 정당화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밝혔다. 이 연구에 따르면 사건을 가해자의 탓으로 귀인하는 것은 체제정당화 정도를 낮춘다. 이와 같이 체제 정당화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요인들은 대부분이 자신 또는 사회에 대한 지각과 판단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자신이나 사회에 대한 지각과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요인들 중 무관 정서에 주목하였다.

무관 정서가 지각과 판단에 미치는 영향

사람들이 내리는 판단에 대한 많은 연구들에서, 주어진 상황과 인과적 관계가 없는 인지나 정서 등이 현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보고되어 왔다(Blanchette & Richards, 2010). 무관 정서(incidental affect)란 사고와 판단의 대상이 되는 자극과 관계가 없는 정서이다.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난 후의 좋은 기분은 학교 시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무관 정서가 된다. 하지만 이 좋은 기분에 영향을 받아 학교 시설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될 수 있는 것처럼 무관 정서는 사고, 판단 또는 결정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Waters, 2008; Lerner & Keltner, 2000). 초기의 무관 정서에 관한 연구는 정서를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로 나누는 유인가 기반(valence-based)의 접근을 취하였다. 유인가 기반 접근의 연구로는 정서가 사회 인지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데 기억에 관한 연합주의적 시각을 동원한 연결망 모형(Bower, 1981)과 정보로서의 정서(affect-as-information) 모형(Schwarz & Clore, 1983) 등이 있다. 이 중 정보로서의 정서 모형은 정서가 어떤 대상을 인지하는 데 있어 하나의 정보로서 기능한다는 이론이다. 예를 들어, Schwarz와 Clore(1983)는 삶의 만족도 조사 이전에 날씨가 어떤지를 묻는 것이 삶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여 무관한 긍정/부정 정서가 어떠한 대상 또는 상황을 판단하는 정보로 기능한다는 것을 보였다. 같은 맥락에서 Johnson과 Tversky(1983)는 젊은 사람들의 죽음을 다룬 기사를 읽음으로써 유발된 부정 정서가 그와 무관한 부정적인 사건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지각하게 한다는 것을 보였다. 긍정 정서는 여러 가지 대상 또는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을, 부정 정서는 부정적인 지각을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인가를 기반으로 한 연구들은 긍정 정서가 긍정적인 판단을, 부정 정서가 부정적 판단을 이끌어낸다는 것을 밝혀냈지만 유인가는 같지만 서로 다른 정서들(예를 들면 공포, 분노 등의 부정 정서들)이 사회 인지, 판단, 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다양한 정서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유인가 기반의 정서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며 Roseman(1984)은 정서의 평가 이론(Appraisal Theory)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르면(Roseman, 1984; Scherer, 1988; Smith & Ellsworth, 1985; Smith & Ellsworth, 1987) 경험한 사건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경우 같은 유인가 내에서도 경험하는 정서의 차이가 생긴다. Smith와 Ellsworth(1985)는 부정적 사건으로 유발된 각기 다른 부정 정서들(분노, 공포, 슬픔 등)이 사건에 대한 다양한 차원에서의 평

가와 관련이 있음을 보였다. 예를 들어 특정한 부정적 사건이 타인이 통제할 수 있었던 원인에 의해 발생했던 것으로 여겨진다면 분노를, 통제 불가능한 원인에 의했던 것으로 여겨진다면 슬픔이나 공포를, 또는 자신이 그 사건의 원인으로 여겨진다면 죄책감을 경험하게 된다. 즉, 부정적 사건이 얼마나 부정적인지 뿐만 아니라 사건의 원인과 관련된 '주도성(agency)'에 대한 평가가 어떤 정서를 경험하는가에 중요한 고려점이 되는 것이다. Tesser(1990)와 Roseman, Spindel, & Jose(1990)는 평가 이론의 연구들(Smith & Ellsworth, 1985; 1987)을 종합하면서, 어떤 부정적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한 책임(responsibility), 통제(control), 확신(certainty), 예측 가능성(predictability), 중요도(importance) 등의 측면에서의 평가가 부정적 유인가의 정서 중에서 특히 공포와 분노 정서의 경험과 연관이 있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분노는 그 사건에 대한 확신과 자신의 통제감, 자신에게 힘이 있다고 지각될 때, 상황이 예측 가능하고 인간의 통제가 가능하다고 여겨질 때, 그리고 부정적 사건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때 경험된다. 반면 공포는 상황에 대한 확신과 자신의 통제감과 그리고 지각된 자신의 힘이 낮을 때, 상황이 예측 불가능하며 인간의 힘으로 통제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때 경험되는 정서이다.

Lerner와 Keltner(2000)는 같은 부정적 사건에 있어서도 그 원인에 대한 평가에 따라 경험하는 부정 정서가 달라진다는 Smith와 Ellsworth(1985; 1987)의 연구에 착안하여 새로이 평가 경향적 접근(Appraisal Tendency Approach)의 정서 연구를 제안하였다. 이 접근에 따르면 특정한 정서들은 각기 독특한 차원의 평가를 유발하거나 유발하지 않음으로써 인지와 판단, 그리고 결정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친다. 즉 부정적 사건과 관련된 통제와 확실성, 귀인, 예측 가능성 등의 여러 가지 차원의 평가가 개인이 경험하는 정서를 다르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거꾸로 사건과 무관한 정서의 경험이 그 사건과 자신에 대한 여

러 차원의 평가들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Keltner, Ellsworth, & Edwards(1993)는 부정적 유인가의 정서 중 슬픔과 분노 정서가 미래에 일어날 동일한 사건에 관한 귀인을 달리하게 한다는 것을 보였다. 이 실험에서 슬픔이 점화된 참가자는 분노가 점화된 참가자보다 상황에 더 귀인하는 평가를 하고, 반면에 분노가 점화된 참가자는 행동의 주체에 더 귀인하는 평가를 했다. 또한 Lerner와 Keltner(2001)의 연구에서는 두 가지 부정 정서인 공포와 분노가 위험 지각(risk perception)에 서로 반대되는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공포를 많이 느낄수록 위험을 더 높게 지각하고 분노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할수록 위험을 더 낮게 지각한다. 이상의 연구들은 유인가 기반의 접근보다 평가 경향적 접근이 사회 인지에 대한 정서의 영향을 이해하는 더 좋은 접근 방식이 될 수 있음을 보였다. 종합하면, 서로 다른 정서의 경험은 같은 유인가라 할지라도 통제 가능성, 예측 가능성, 불확실성, 사건에 대한 귀인, 통제감 등의 사회와 자신에 대한 지각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서의 평가 경향적 관점을 체제 정당화의 맥락에 적용하면, 무관 정서가 체제 정당화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특정한 정서들을 유발하는 것은 사회와 자신에 대한 지각에서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침으로써 체제를 정당화하고자 하는 동기의 정도를 변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체제 정당화와 저항 의지의 관련성을 밝힌 Jost 등(2012)의 연구에 기초하여, 각기 다른 정서 점화를 통해 증가되거나 감소된 체제 정당화의 수준은 사회에 저항하고자 하는 의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도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 및 가설

체제 정당화 이론이 등장한 이후로 체제 정

당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구체적 요인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되어 왔다. 체제 정당화 정도를 조절하는 개인 및 상황 요인들이 밝혀졌지만 체제에 대한 지각과 무관한 다양한 정서의 경험이 체제 정당화 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마찬가지로 무관 정서가 사회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이론인 평가 경향적 접근이 정서의 경험과 다양한 차원의 지각적 평가 사이에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였음에도, 특정 정서의 경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회 체제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미치며 그것이 어떤 행동의 차이를 불러오는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그러므로 다양한 정서들이 사회와 사회 체제를 지각하는 방식인 체제 정당화에 미치는 각기 다른 영향을 탐구하는 것은 인간의 여러 정서들과 그 정서들의 효과뿐 아니라 사람들의 정치적 판단 및 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체제 정당화와 관련하여 무관 정서가 체제 정당화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함으로써 체제 정당화 동기를 유발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무관 정서가 체제 정당화를 통해 부당한 일에 저항하고자 하는 의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체제 정당화가 불러일으키는 역기능적 측면을 교정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무관 정서의 영향에 대한 평가 경향적 접근과 체제 정당화 이론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설정하였다.

가설

가설 1. 체제에 대한 지각과 무관하게 경험되는 기쁨과 슬픔, 공포, 분노는 체제 정당화의 정도에서 차이를 유발할 것이다. 분노 정서는 상황에 대한 주도성, 예를 들어 확실성과 통제 가능성, 예측 가능성 등을 높게 평가하는 것과 관

런이 있고, 사건에 대해서도 행동의 주체에 귀인을 하는 경향과 관계가 있다(Lerner & Keltner, 2000). 반면 분노 정서와 같이 부정적 유인가를 가진 공포 정서는 분노 정서에 비해 확실성과 통제 가능성, 예측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것(Lerner & Keltner, 2000; 2001), 그리고 슬픔 정서는 분노 정서에 비해 예측 가능성과 행동 주체에 대한 귀인을 낮게 평가하는 것(Smith & Ellsworth, 1985; Keltner et al., 1993)과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사회의 불확실성(Jost & Hunyady, 2005)을 낮게 지각하고 자신의 통제감(Kay, Gaucher, et al., 2008)을 높게 지각하는 것, 행동의 주체에 사건을 귀인하는 것(Kay et al., 2005)은 체제 정당화를 덜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분노 정서는 이러한 지각들과 연합되어 체제 정당화를 덜 하게 할 것이고, 반대로 공포 정서, 슬픔 정서 조건에서는 불확실성, 통제 가능성, 귀인 등의 자신과 사회에 대한 지각에 있어 분노 정서와 다른 효과를 가질 수 있으므로 체제 정당화 수준이 더 높으리라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기쁨 정서는 다른 세 가지 정서와 달리 긍정적 유인가의 정서이기 때문에, 그 좋은 기분을 유지하기 위해(Wegener & Petty, 1994) 분노 정서에 비해 체제 정당화를 더 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분노 정서가 점화되면 다른 세 가지 정서가 점화되었을 때에 비해 체제 정당화의 수준이 낮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가설 2. 각기 다른 정서의 점화로 유발된 체제 정당화의 정도 차이는 사회 체제에 저항하고자 하는 의지(willingness to protest)의 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에서 예측한 대로 분노와 공포 정서 점화 조건에서 체제 정당화의 수준 차이가 유발된다면, 그것은 사회 저항 의지의 차이로 이어질 것이다. Jost 등(2012)이 밝힌 대로, 체제 정당화 수준이 높아진 사람은 사회 변혁을 덜 지지하게 되므로 사회에 대한 저항 의지도 더 낮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분노

정서의 점화는 다른 정서를 점화했을 때에 비해 체제 정당화 정도가 더 낮고, 이는 다시 더 높은 저항 의지로 이어질 것이다. 즉, 체제 정당화의 정도는 정서가 저항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방 법

참가자

이 연구의 참가자는 중부권의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심리학과 교양 및 전공 수업을 듣는 학부생 185명(남성 95명)으로 평균 나이는 21.55세였다. 참가자들은 학점을 받기 위한 과제의 일환으로 실험에 참가하였다.

절차

실험의 모든 절차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Inquisit 2.0.6.0(2006)을 이용해 제작,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컴퓨터 화면에 제시된 지시문을 읽고 헤드폰을 착용하여 정서를 점화하는 동영상 시청하였으며, 질문에 응답하는 모든 과정은 컴퓨터 마우스나 키보드를 조작하여 수행하였다. 참가자들은 이 연구가 앞으로 수행될 “사회적 사건의 평가에 관한 연구”의 자극들을 판별하고자 하는 사전 연구이며, 짧은 동영상 한 편을 시청한 후에 컴퓨터로 제시되는 질문에 응답하게 될 것이라고 안내받았다. 또한 동영상에서 묘사되는 상황이 참가자 본인에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상상해 달라는 문장이 화면으로 제시되었다. 지시문을 읽은 후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동영상이 재생되었다. 점화되는 정서는 기본 정서(Ekman, Friesen, & Ellsworth, 1982)에 포함되는 기쁨, 슬픔, 분노, 공포의 네 가지로 한정하였으며 참가자들은 무작위로 각 정서 조건에 할당되었다. 영상을 본 후 참가자들은 자신이 그 동영상의 상황에 있었다면 어떤 정서를 느꼈을지에

대한 간단한 글을 쓰도록 요청받았다. 이는 경험한 정서에 대해 묻는 것이 정서 점화 효과를 강화한다는 선행연구(Lerner 등, 2004)를 참고한 것이다.

이후 참가자들은 하나의 연구가 끝났으며, 약 1분가량(실제로는 40초)의 휴식을 가질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이것은 참가자들이 이후 계속되는 체제 정당화와 저항 의지에 관한 질문들이 동영상의 내용과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절차였다. 휴식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체제 정당화 정도를 재는 여덟 문항, 저항 의지를 측정하는 다섯 문항, 조작 점검 여섯 문항과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묻는 문항들에 응답하였다.

동영상 자극

본 연구에 사용된 정서 점화 자극은 장은혜, 석지아, 엄진섭, 손진훈(2005)과 박영옥(2012)이 정서 점화 자극으로 개발하였거나 사전 연구를 거쳐 사용한 네 개의 시청각 자료였다. 기쁨과 분노 점화 동영상은 장은혜 등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발췌, 편집하여 개발한 시청각 자극 세트 중에서 사회 체제와 직접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극을 하나씩 선별하였다. 분노 동영상은 영화 ‘여고괴담’에서 교사가 여고생을 폭행하는 장면을, 기쁨 동영상은 영화 ‘하루’에서 결혼한 부부가 임신을 확인하고 기뻐하는 장면을 사용하였다. 슬픔과 공포 점화 동영상은 박영옥(2012)이 선정한 정서 점화 동영상 자극을 사용하였다. 슬픔 동영상은 죽음을 앞둔 아버지와 아이들의 마지막 작별 장면을 담은 MBC 휴먼다큐 ‘사랑’의 일부를 사용하였고, 공포 동영상은 영화 ‘장화, 홍련’에서 여주인공이 귀신을 목격하는 장면을 사용하였다. 모든 동영상은 1분 30초가량의 동일한 시간 동안 재생 되도록 편집 과정을 거쳤으며, 동영상의 크기와 음량 또한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었다. 각 동영상 자극의 대표적인 장면들이 그림 1에 제시

되었다.

체제 정당화

체제 정당화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들은 Kay와 Jost(2003)의 체제 정당화 척도를 현 한국 사회에 맞게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질문에 응답하기 이전에 참가자들은 현 한국 사회를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답하게 될 것이며 앞으로 나올 문항들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키를 눌러 응답해 달라는 지시문을 읽었다. 다음 화면에서는 체제 정당화를 측정하는 “대체로 우리 사회는 공평한 것 같다.”, “대개 한국의 정치체제는 적절하게 작동한다.”, “한국 사회는 급격히 재구조화될 필요가 있다.(역문항)”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나라이다.”, “대부분의 정책들은 공공선을 실현한다.”, “모든 사람들은 물질적 부와 행복을 얻을 기회를 갖고 있다.”, “우리 사회는 매년 점점 나빠지고 있다.(역문항)”, “한국 사회는 사람들이 대체로 자기가 얻을 자격이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짜여져 있다.”의 여덟 개의 문항들이 하나씩 차례로 제시되었다. 화면의 가장 윗부분에는 “귀하는 다음 각 문항들에 얼마나 동의하시나요?”라는 물음이 보이고 문항의 아랫부분에는 키보드로 조작 가능한 수평선상의 7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동의하지 않음, 7점: 매우 동의함)를 배치했다. 참가자는 키보드로 숫자 키를 누른 후 엔터키를 눌러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문항에 응답하였다. 측정된 체제 정당화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Cronbach's $\alpha = .76$ 이었다.

저항 의지

체제 정당화 정도의 측정 후에 참가자들은 마찬가지로의 방법으로 저항 행동에의 의지를 측정하는 문항들에 응답하였다. 저항 의지에 관련한 문항들은 Jost 등(2012)의 연구에서 사용된 저항 의지 척도를 번역하였다. Jost 등(2012)의 연

구에서는 어떤 특정한 사건을 제시하고 그 사건에 관련한 저항 의지를 측정하는 목적으로 이 척도를 사용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절차에서 사용하기 위해, 참가자에게 자신이 정부에 의해 피해를 받은 사람이라고 가정하게 한 뒤 어떤 저항적 행동을 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방식으로 수정하였다. 문항은 모두 여섯 개로 이루어졌으며 참가자들은 정부에 저항하는 행동들 중 일부인 서명하기, 항의 이메일 쓰기, 시위하기 등의 특정한 행동이 제시되면 그 행동을 할 의향을 7점 척도에 평정하였다. 체제 정당화 문항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화면의 윗부분에 “만약 우리나라 정부 또는 공공 기관에 의해 귀하나 귀하의 가족의 권리나 자유가 침해당하는 일이 있다면, 어떤 행동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라는 물음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화면 가운데에 저항 의지를 묻는 문장(예: “나는 정부에 친구들과 함께 옳지 않은 정책에 문제 제기하는 메일이나 편지를 써 보낼 의지가 있다.”)이 하나씩 제시되었다. 그리고 문항의 아래에 체제 정당화 측정에 쓰였던 것과 동일한 리커트 척도가 주어졌다. 저항 의지 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Cronbach’s $\alpha = .86$ 이었다.

조작 점검 및 인구통계학적 변인

이후 정서 조작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조작 점검 절차가 이어졌다. 조작 점검 질문들은 동영상을 보고 참가자가 여섯 개의 정서(기쁨, 슬픔, 공포, 분노, 놀람, 혐오감)를 얼마나 느꼈는지를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조작되는 네 개의 정서 외에 놀람과 혐오감의 정서를 측정하는 것은 가설과는 직접 관련이 없었으나 관련 정서들의 경험에서도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컴퓨터 화면 윗부분에 “동영상을 본 후 귀하께서는 아래의 정서를 얼마나 느끼셨나요?”라는 질문이 주어졌고, 화면 중간에 여섯 가지 정서가 차례로 하나씩 제시되었다. 참가자들은 1점: ‘전혀 느끼지 않았다’에서부터 7점: ‘매우 많이 느꼈다’까지의 7점 리커트 척도로 각 정서를 평정하였다. 그 후, 참가자들은 나이와 성별, 가계 수입, 주관적인 사회적 지위와 같은 인구 통계학적 질문에 응답하였다. 설문이 모두 끝난 후 참가자들은 실험의 가설과 목적에 대해 설명하는 사후 설명서를 읽은 후 실험실을 떠났다.

표 1. 조작 점검 문항들의 기술통계치들

	분노조건	슬픔조건	공포조건	기쁨조건	F	p
	M(SD)	M(SD)	M(SD)	M(SD)		
조작 점검 문항들						
분노	6.13(1.08) _a	1.73(1.12) _b	2.63(1.66) _c	1.02(0.15) _d	180.59	< .001
슬픔	4.57(1.46) _a	6.47(0.73) _b	2.46(1.58) _c	1.89(1.42) _c	110.46	< .001
공포	4.79(1.77) _a	3.44(1.96) _b	5.96(1.50) _c	1.44(1.20) _d	65.16	< .001
기쁨	1.06(0.25) _a	1.27(0.96) _a	1.29(0.74) _a	6.33(1.11) _b	437.80	< .001
놀람	5.60(1.48) _a	3.11(1.89) _b	5.90(1.28) _a	3.38(1.67) _b	38.73	< .001
혐오감	5.70(1.47) _a	1.42(0.97) _b	5.23(1.55) _a	1.02(0.15) _b	199.35	< .001

주. 모든 F검정에서 $df = (3, 181)$.

평균값 옆의 서로 다른 알파벳 첨자는 사후 검정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는 것을 의미함

결 과

조작 점검

조작 동영상이 해당 정서를 잘 유발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조작 점검 문항의 점수들을 변량분석을 통해 비교한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분노, 슬픔, 공포, 기쁨, 네 문항들에 있어서 변량분석이 모두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각각의 문항들에 대한 Scheffe 방법을 이용한 사후 검정 결과 각 측정 정서에 대해 그에 해당하는 정서 조건들에서 다른 조건들에 비

해 모두 유의미하게 높은 값으로 평정되었다. 그러므로 조작 점검 문항의 분석 결과 각 정서 동영상은 해당 정서를 성공적으로 유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놀람과 혐오 문항에서도 조건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두 문항 모두 분노 조건과 공포 조건이 기쁨과 슬픔 조건보다 더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체제 정당화에 대한 무관 정서의 효과

각 조건의 체제 정당화 점수 평균이 그림 2에 제시되었다. 체제 정당화 점수는 예측한 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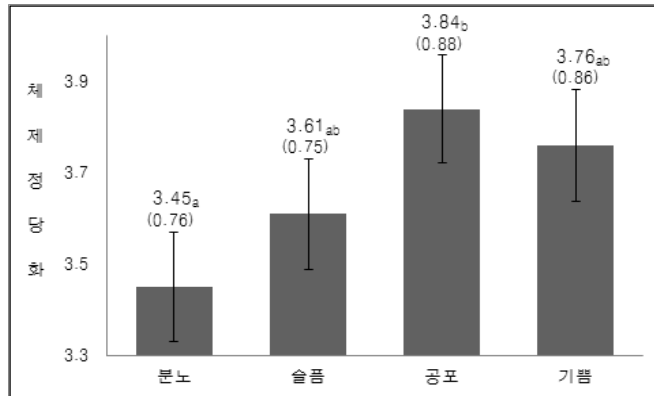


그림 1. 각 정서 조건별 체제 정당화 점수의 평균(표준 편차)

주. 평균값 옆의 서로 다른 알파벳 첨자는 사후 검정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는 것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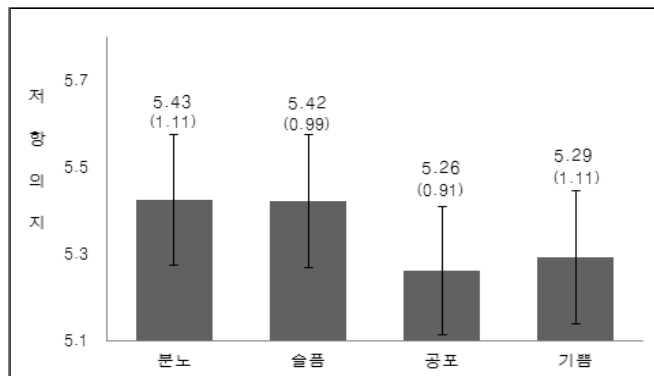


그림 2. 각 정서 조건별 저항 의지 점수의 평균(표준 편차)

분노조건이 모든 정서 조건 중 가장 낮았다. 분노를 제외한 정서 중에서는 공포조건이 체제 정당화 정도가 가장 높았다. 각 조건의 평균 비교를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네 조건에 걸친 무관 정서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3, 181) = 2.01, p = .11, \eta^2 = .03$. 하지만 사후 검정을 통해 각각 정서 조건간의 차이를 보면 가설 1에서 예측한대로 분노와 공포 조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p = .02$. 마찬가지로 분노와 기쁨 조건은 유의수준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p = .08$. 그러나 분노와 슬픔 조건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분노 정서가 접화된 사람은 공포 정서나 기쁨 정서가 접화된 사람보다 체제 정당화를 덜 하는 경향을 나타낸 것이다.

저항 의지에 대한 무관 정서의 효과

저항 의지 점수의 평균값과 표준편차가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저항 의지 점수는 왜도가 -0.50로 부적 편포가 심했으므로 이를 교정하기 위해 박광배(2003)가 제안한 대로 정규분포에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변형방법(제곱값으로 변형)을 사용해 저항 의지 점수를 계산, 분석에 사용하였다(교정된 저항 의지점수의 왜도 = 0.03).

저항 의지 점수는 분노 조건이 가장 높고 공포 조건이 가장 낮았지만 정서 조건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F(3, 181) = 0.417, p = .74, \eta^2 = .01$. 각각의 조건 간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정서와 체제 정당화, 저항 의지간의 관계

체제 정당화와 저항 의지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체제 정당화 점수와 저항 의지 점수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r = -.17, p = .02$. 위의 결과를 통해 비록 조건 간 저항 의지 점수의 차이는 없었지만 정서가 체제 정당화 정도에 영향을 미치고 체제 정당화는 저항 의지와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Hayes(2009)는 예측변인에서 결과변인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더라도 예측변인에서 매개변인, 매개변인에서 결과변인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각각 유의할 때 매개 효과는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므로 정서에서 체제 정당화, 저항 의지로 이어지는 매개 효과가 존재할 가능성을 상정해볼 수 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Hayes가 개발한 SPSS 매크로 ‘PROCESS’ (Hayes, 2013)를 사용한 매개 분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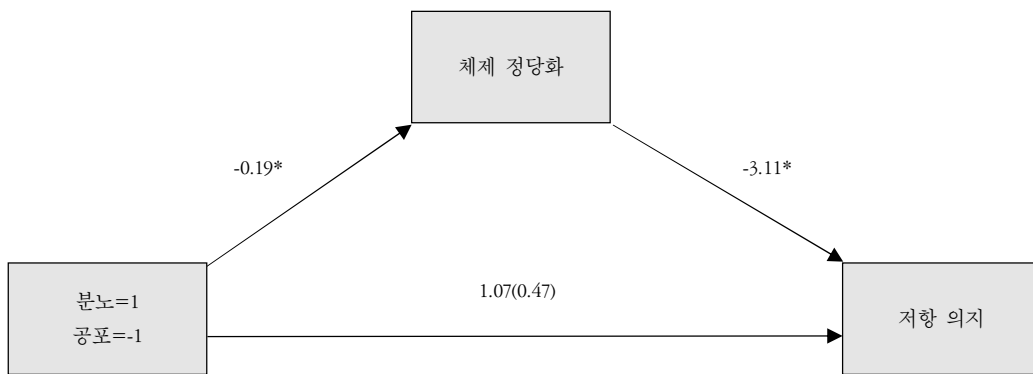


그림 3. 분노, 공포 정서와 체제 정당화, 저항 의지의 매개 모형

주. 제시된 숫자는 비표준화된 회귀계수이며 괄호 안의 숫자는 직접 효과를 표시한 것임.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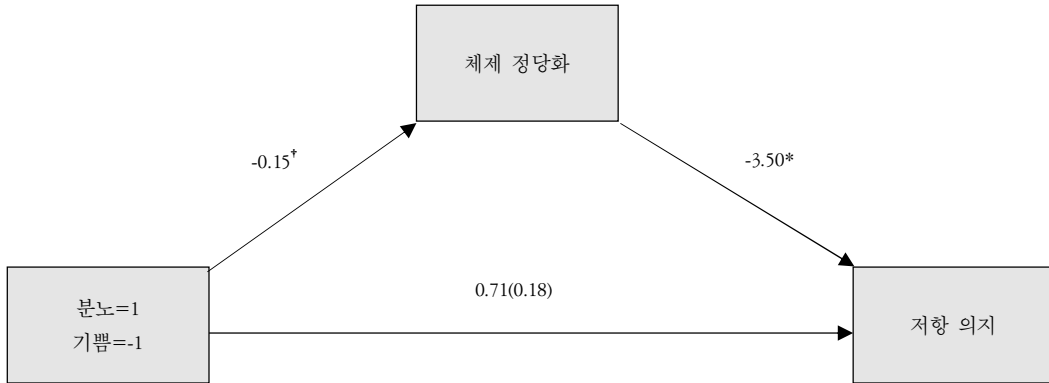


그림 4. 분노, 기쁨 정서와 체제 정당화, 저항 의지의 매개 모형

주. 제시된 숫자는 비표준화된 회귀계수이며 괄호 안의 숫자는 직접 효과를 표시한 것임.

† $p < .10$, * $p < .05$.

Hayes의 매크로는 다양한 조절, 매개 모형을 검증하고 특히 간접 효과의 95% 신뢰 구간을 bootstrapping 방법을 통해 추정할 수 있는 도구이다. 먼저 검증하고자 하는 매개 모형은 체제 정당화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던 분노와 공포 조건을 예측 변인으로 하는 첫 번째 모형, 그리고 체제 정당화에 유의도에 근접한 차이를 보였던 분노 대 기쁨의 대비를 예측 변인으로 하는 두 번째 모형의 이 두 개의 모형을 설정하였다. 두 개의 모형에서 분노 조건을 1로, 공포 또는 기쁨 조건을 각각 -1로 코딩하였고, 체제 정당화 점수를 매개 변인으로, 저항 의지 점수의 변형값(제곱값)을 결과 변인으로 한 매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매개 모형과 회귀 계수가 그림 3과 4에 제시되어 있다. 첫 번째 모형의 매개 분석에서는 5000번의 resampling 결과 매개 효과의 크기의 95% 신뢰구간은 [0.073, 1.585]인 것으로 나타나,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았다. 즉, 정서가 체제 정당화 정도를 변화 시킴으로써 저항 의지에 반대 방향의 영향을 미치는 간접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분노 정서는 나머지 정서에 비해 체제 정당화 정도를 낮추었고, 체제 정당화는 저항 의지와 부적인 관련성이 나타났다.

다음 마찬가지로 체제 정당화 정도에 유의 수준에 가까운 차이를 보인 분노 조건과 기쁨 조건을 예측변인으로 설정한 두 번째 모형에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찬가지로 분노 정서는 기쁨 정서에 비해 체제 정당화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보였고, 체제 정당화는 저항 의지에 부적 영향을 미쳤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앞선 분석과 마찬가지로 매개 효과의 크기의 95% 신뢰구간은 0을 포함하지 않는 [0.009, 1.558]인 것으로 나타나, 분노와 기쁨 정서의 저항 의지에 대한 체제 정당화를 통한 매개 효과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논 의

결과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체제와 무관하게 발현된 정서가 사회 체제를 정당화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저항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동영상 자극을 통해 유발된 네 가지 정서(기쁨, 슬픔,

분노, 공포)는 각기 다른 정도의 체제 정당화를 유발했다. 구체적으로 가설 1에서 예측한 대로 분노 정서의 점화 이후에는 공포와 기쁨 정서가 점화된 경우에 비해 체제 정당화가 덜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록 각 정서의 점화가 저항 의지에 미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체제 정당화의 수준과 저항 의지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인 상관이 있었다. 즉, 체제 정당화를 많이 했을수록 저항 의지는 줄어들었다. 그리하여 정서(분노 대 나머지 정서)를 예측 변인, 체제 정당화를 매개 변인으로 두고 저항 의지에 대한 매개 효과를 살펴보았더니 그 매개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종합해 보면 분노 정서는 다른 정서에 비해 체제 정당화 정도를 상대적으로 낮추어 저항 의지를 높이는 경향이 있고, 다른 정서는 분노 정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제 정당화 정도를 높임으로써 저항 의지를 낮추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분노와 슬픔, 공포는 모두 부정적 유인가의 정서이지만 각기 다른 정도의 체제 정당화와 관련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체제에 대한 지각을 통해 체제에 대항하는 행동 의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보임으로써 사람들의 정치적 지각과 행동 동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현실적인 함의를 찾을 수 있다.

평가 경향적 접근의 정서 연구들(Lerner & Keltner, 2000; Keltner et al., 1993 등)을 바탕으로 이 결과를 해석해 보면, 분노 정서는 자신의 통제감이나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높게 지각하게 하여 체제를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이나 체제의 문제점에 대한 책임감과 변화 의지를 유발하고, 이 의지가 체제를 덜 정당화하도록 만들었을 수 있다. 반면 공포 정서의 경우 상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나 통제 가능성을 낮게 지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분노 정서에 비해 체제를 안정적으로

지각하고자 하는 동기가 더 강하게 유발되었을 수 있다. 반면 기쁨과 슬픔의 정서는 가설과 달리 분노 정서와 체제 정당화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슬픔을 경험할 때는 분노를 느낄 때에 비해서 상황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통제 가능성을 낮게 지각하게 되기 때문에(Smith & Ellsworth, 1985; Keltner et al., 1993), 그리고 긍정 정서인 기쁨은 현재의 기분을 유지하고 싶은 동기를 유발하기 때문에(Wegener & Petty, 1994) 체제를 정당화하는 동기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이 각각의 효과가 공포 정서와 분노 정서의 차이만큼 크지는 않았을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책임감이나 통제감과 같은 변인을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해석은 추론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이 추론이 타당한지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한계점 및 후속연구의 방향

본 연구의 한계점은 첫째, 정서가 저항 행동 의향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모든 조건에서 저항 의지의 평균 점수가 다소 높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저항 의지 문항들이 실제 행동을 측정할 것이 아니라 체제에 의해 피해를 받았다는 것을 가정하는 비구체적인 상황에서 저항을 할 것인지를 묻는 비교적 쉽게 동의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천장효과(ceiling effect)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문항들은 선행연구(Jost et al., 2012)에서 쓰인 것과 달리 자신이 피해를 받은 상황이라고 가정한 후의 저항 행동 의지를 측정했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실제로 그 행동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때문에 참가자들이 사회적 바람직성을 따라 거의 모든 문항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이 응답하기에 너무 쉽지도, 너무 어렵지도 않은 문항들을 포함하여 저항 의지를 측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정서가 체제 정당화에 영향을 미치고,

체제 정당화가 저항 의지에 부적 관련성을 보인다는 것은 확인하였지만 정서가 어떤 심리적 기제를 통해 체제 정당화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탐색하지는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평가 경향적 접근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각각의 정서가 그에 따라 달라지는 사회 또는 자기 지각 변인들(예를 들어 통제감이나 체제에 대한 책임감 등)을 매개하여 체제 정당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였지만, 그 변인들을 직접 측정하지는 않았다. 추후 연구를 통해 이러한 사회 지각, 자기 지각이 체제 정당화에 대한 정서의 영향을 매개하는지 그 매커니즘을 보다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셋째, 정서 점화 방법으로 각각 하나씩의 동영상 사용했기 때문에 정서 외의 다른 혼입 변인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분노 정서 동영상을 시청한 경우, 교사가 여고생을 폭행하는 영상을 보면서 분노의 정서와 공포의 정서를 함께 느낄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을 본 참가자들은 교사를 체제를 대표하는 인물로 해석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해석의 가능성이 분노 동영상에서 체제 정당화 정도가 가장 낮은 원인이었을 수 있다. 아울러 한 가지 정서 점화 방법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일반화 가능성의 문제도 존재한다. 이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후속연구에서는 다른 방식(예: 과거 정서 경험 회상; Forgas, 1999)의 정서 점화 방식을 이용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재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평소 참가자의 체제 정당화 및 저항 의지를 사전에 측정하지 않았다. 또한 정서가 아예 유발되지 않은 통제 조건도 없었다. 그러므로 분노나 기타 정서들에 의해 체제 정당화가 높아졌는지 또는 낮아졌는지가 아니라, 다른 정서에 비해 어떤 값을 가졌는지를 비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참가자의 평소 체제 정당화 정도나 평소의 저항 의지 정도를 측정하였거나 정서를 유발하지 않은 통제변인을 추가하여 어떤 정서가 실질

적으로 체제 정당화 정도와 저항 의지 정도를 낮추거나 높이는지에 대해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론 및 의의

본 연구는 무관 정서의 경험이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을 보는 시각, 구체적으로 사회 체제에 대한 생각에 영향을 미치며, 세상과 사회 체제를 정당화하는 정도는 체제에 저항하고자 하는 행동 동기에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체제와 관련 없는 맥락에서 유발된 분노의 정서는 공포나 기쁨과 같은 다른 정서들에 비해 체제를 정당화하는 정도를 낮춘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사회와 체제에 대한 지각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뿐 아니라 우연히 유발된 정서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정서가 체제 정당화에 의해 매개되어 저항 행동에 대한 의지에도 영향을 미치는 인과 모형을 매개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이 결과는 각기 다른 정서가 체제에 대한 지각을 변화시킴으로써 행동 동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특히 평가 경향적 접근의 정서 연구들이 특정한 무관 정서가 자신과 사회에 대한 각기 다른 지각을 유발한다는 것을 밝혔지만,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구체적인 현실 세계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고 또 그로 인해 어떤 동기적, 행동적 차이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힌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특정한 무관 정서가 체제에 대한 정당화 정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여 무관 정서가 현실 세계에 대한 판단 및 해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밝혔으며, 매개 분석을 통해 그렇게 영향을 받은 체제 정당화의 정도가 저항 의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함의를 가진다.

본 연구의 결과와 현실 속의 정치 현상들을 관련지어 고려해보면 국가적 이슈를 통해 유발되는 분노나 공포와 같은 특정한 집단적 정서가 사람들의 사회와 체제에 대한 지각 및 판단에 영향을 미쳐 국가의 정책이나 법의 제정에 대한 지지, 선거에서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면, 본 연구의 결과는 2004년 미국 대선에서 보수 성향의 부시의 재선이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가 9.11 사건이 촉발시킨 테러리즘에 대한 불안이 미국 사회에 만연했기 때문이라는 설명(Davis & Silver, 2004)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특정 정서를 통해 변화된 수준의 체제 정당화가 각 개인의 저항 또는 응종의 동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검증했다는 점에서도 본 연구의 현실적인 함의를 찾을 수 있다. 만약 같은 사건을 겪었더라도 그 사건으로 인해 분노의 정서가 유발된 사람은 다른 정서가 유발된 사람보다 체제 정당화를 덜 하고, 집회에 참가하거나 사회 운동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등의 체제를 변화시키려는 행동에 참가하는 경향이 높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발견은 앞으로 여러 가지 맥락에서의 판단 또는 지각에 미치는 무관 정서의 영향을 탐색하고 또한 그런 지각 또는 판단이 가져오는 다양한 결과들에 대한 연구에 보탬이 될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많이 연구되지 않았던 체제 정당화 이론의 국내 적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박광배 (2003). 변량분석과 회귀분석. 서울: 학지사.
- 박영옥 (2012). 공감능력에 따른 안면근육운동 및 자율신경 반응성의 차이.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은혜, 석지아, 엄진섭, 손진훈 (2005). 시청각 동영상(Audio-visual Film Clips)을 이용한 정서유발프로토콜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실험, 17(1), 69-84.
- Blanchette, I., & Richards, A. (2010). The influence of affect on higher level cognition: A review of research on interpretation, judgement, decision making and reasoning. *Cognition and Emotion*, 24(4), 561-595. doi:10.1080/02699930903132496
- Bower, G. H. (1981). Mood and memory. *American Psychologist*, 36(2), 129-148. doi:10.1037/0003-066X.36.2.129
- Davis, D., & Silver, B. (2004). The threat of terrorism, presidential approval, and the 2004 election. In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Chicago, IL.
- Ekman, P., Friesen, W. V., & Ellsworth, P. (1982). What emotion categories or dimensions can observers judge from facial behavior? In P. Ekman (Ed.), *Emotion In The Human Face* (pp. 39-55).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orgas, J. P. (1999). On feeling good and being rude: Affective influences on language use and request formul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6), 928-939. doi:10.1037/0022-3514.76.6.928
- Hayes, A. F. (2009). Beyond Baron and Kenny: Statistical mediation analysis in the new millennium. *Communication Monographs*, 76(4), 408-420. doi:10.1080/03637750903310360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Inquisit 2.0.5.0 [Computer software]. (2006). Seattle, WA: Millisecond Software.
- Johnson, E. J., & Tversky, A. (1983). Affect, generalization, and the perception of risk.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1), 20-31. doi:10.1037/0022-3514.45.1.20
- Jost, J. T., & Banaji, M. R. (1994). The role of

- stereotyping in system-justification and the production of false consciousnes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3(1), 1-27. doi:10.1111/j.2044-8309.1994.tb01008.x
- Jost, J. T., Chaikalis-Petritsis, V., Abrams, D., Sidanius, J., van der Toorn, J., & Bratt, C. (2012). Why men (and women) do and don't rebel: Effects of system justification on willingness to protes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8(2), 197-208. doi:10.1177/0146167211422544
- Jost, J. T., Glaser, J., Kruglanski, A. W., & Sulloway, F. J. (2003). Political conservatism as motivated social cognition. *Psychological Bulletin*, 129(3), 339-375. doi:10.1037/0033-2909.129.3.339
- Jost, J. T., & Hunyady, O. (2003). The psychology of system justification and the palliative function of ideology.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13(1), 111-153. doi:10.1080/10463280240000046
- Jost, J. T., & Hunyady, O. (2005).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system-justifying ideologie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4(5), 260-265. doi:10.1111/j.0963-7214.2005.00377.x
- Jost, J. T., Pelham, B. W., Sheldon, O., & Ni Sullivan, B. (2003). Social inequality and the reduction of ideological dissonance on behalf of the system: Evidence of enhanced system justification among the disadvantaged.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3(1), 13-36. doi:10.1002/ejsp.127
- Jost, J. T., & Thompson, E. P. (2000). Group-based dominance and opposition to equality as independent predictors of self-esteem, ethnocentrism, and social policy attitudes among African Americans and European American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6(3), 209-232. doi:10.1006/jesp.1999.1403
- Kay, A. C., & Friesen, J. (2011). On social stability and social change: Understanding when system justification does and does not occur.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0(6), 360-364. doi:10.1177/0963721411422059
- Kay, A. C., Gaucher, D., Napier, J. L., Callan, M. J., & Laurin, K. (2008). God and the government: Testing a compensatory control mechanism for the support of external system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5(1), 18-35. doi:10.1037/0022-3514.95.1.18
- Kay, A. C., Jimenez, M. C., & Jost, J. T. (2002). Sour grapes, sweet lemons, and the anticipatory rationalization of the status quo.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9), 1300-1312. doi:10.1177/01461672022812014
- Kay, A. C., & Jost, J. T. (2003). Complementary justice: Effects of "poor but happy" and "poor but honest" stereotype exemplars on system justification and implicit activation of the justice mo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5), 823-837. <http://doi.org/10.1037/0022-3514.85.5.823>
- Kay, A. C., Jost, J. T., Mandisodza, A. N., Sherman, S. J., Petrocelli, J. V., & Johnson, A. L. (2007). Panglossian ideology in the service of system justification: How complementary stereotypes help us to rationalize inequality. In M. P.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38, pp. 305-358).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Kay, A. C., Jost, J. T., & Young, S. (2005). Victim derogation and victim enhancement as alternate routes to system justification. *Psychological Science*, 16(3), 240-246. <http://doi.org/10.1111/j.0956-7976.2005.00810.x>
- Keltner, D., Ellsworth, P. C., & Edwards, K. (1993). Beyond simple pessimism: effects of sadness and anger on social percep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5), 740-752. doi:10.

- 1037/0022-3514.64.5.740
- Kruglanski, A. W., Webster, D. M., & Klem, A. (1993). Motivated resistance and openness to persuasion in the presence or absence of prior in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5), 861-876. doi:10.1037/0022-3514.65.5.861
- Lerner, M. J. (1965). Evaluation of performance as a function of performer's reward and attractiv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4), 355-360. doi:10.1037/h0021806
- Lerner, J. S., & Keltner, D. (2000). Beyond valence: Toward a model of emotion-specific influences on judgement and choice. *Cognition & Emotion*, 14(4), 473-493. doi:10.1037/0022-3514.64.5.740
- Lerner, J. S., & Keltner, D. (2001). Fear, anger, and risk.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1), 146-159. doi:10.1037/0022-3514.81.1.146
- Owuamalam, C., Issmer, C., Zagefka, H., Klaßen, M., & Wagner, U. (2014). Why do members of disadvantaged groups strike back at perceived negativity towards the in-group?: Meta-stereotyping and expressions of discontent. *Journal of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24(3), 249 - 264. doi:10.1002/casp.2165
- Roseman, I. J. (1984). Cognitive determinants of emotion: A structural theory. *Review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5, 11-36.
- Roseman, I. J., Spindel, M. S., & Jose, P. E. (1990). Appraisals of emotion-eliciting events: Testing a theory of discrete emo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5), 899-915. doi:10.1037/0022-3514.59.5.899
- Scherer, K. R. (1988). Criteria for emotion-antecedent appraisal: A review. In V. Hamilton, G. H. Bower, & N. H. Frijda (Eds.), *Cognitive Perspectives on Emotion and Motivation* (pp. 89-126). Dordrecht, Holland: Nijhoff.
- Schwarz, N., & Clore, G. L. (1983). Mood, misattribution, and judgments of well-being: Informative and directive functions of affective st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3), 513-523. doi:10.1037/0022-3514.45.3.513
- Sidanius, J., & Pratto, F. (1999). *Social dominance: An intergroup theory of social hierarchy and oppress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mith, C. A., & Ellsworth, P. C. (1985). Patterns of cognitive appraisal in emo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4), 813-838. doi:10.1037/0022-3514.48.4.813
- Smith, C. A., & Ellsworth, P. C. (1987). Patterns of appraisal and emotion related to taking an exa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3), 475-488. doi:10.1037/0022-3514.52.3.475
- Tesser, A. (1990). Smith and Ellsworth's appraisal model of emotion: A replication, extension and tes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6(2), 210-223. doi:10.1177/0146167290162003
- Waters, E. A. (2008). Feeling good, feeling bad, and feeling at risk: A review of incidental affect's influence on likelihood estimates of health hazards and life events. *Journal of Risk Research*, 11(5), 569-595. doi:10.1080/13669870701715576
- Wegener, D. T., & Petty, R. E. (1994). Mood management across affective states: The hedonic contingency hypothe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6), 1034-1048. doi:10.1037/0022-3514.66.6.1034

1 차원고접수 : 2015. 06. 08.

수정원고접수 : 2015. 08. 06.

최종게재결정 : 2015. 08. 07.

The Effects of Priming Incidental Emotions on System Justification

Hyeon Jeong Kim

Sang Hee Park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People are motivated to rationalize the world and the system that they live in (Jost & Banaji, 1994), and those with higher levels of this system justification motive are less likely to support social change. Meanwhile, primed emotions unrelated to a given target can influence perceptions and judgments involving that target (Lerner & Keltner, 2000). Therefore it is possible that primed emotions unrelated to the system affect the degree of system justification, and in turn change the willingness to protest against the system. To test this, we had participants watch a short video clip to induce one of four emotions (anger, sadness, happiness, and fear), and measured system justification as well as the willingness to protest against the status quo. As predicted, anger-induced participants justified the system less than those who were primed with fear or happiness. Although the direct effect of emotion priming on the willingness to protest was not significant, the indirect effect through system justification was. The result confirms that incidental emotions can influence how people construe the reality and the motivation to change it.

Keywords : *system justification, incidental emotion, willingness to protest, emotion priming*